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의 젊은 예배자들, 새로운 부흥의 불길 세계 곳곳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 복음으로 하나되어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목청껏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는 가슴을 뻥 뚫 어주는 시원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광림교회 청년부 현재 군복무 중인 광림의 한 청년은 군대 휴가와 외박을 모아 지난 여름 4박 5일 일 정의 청년부 〈제주도 국내선교〉를 다녀 왔고, 또 2박 3일 〈청년부 캠프〉도 다녀 왔다. 광림의 다른 청년들도 직장의 휴가와 월차를 모아 국내와 해외선교를 다녀온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목청껏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는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위로가 있으며,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 한다. 더불어 청년들은 현장에서 살아서 역 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다고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

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 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에스겔 37:5)

광림교회 청년부는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숨 쉬게 하라' 는 주제 아래 감성과 지성, 영성의 균형을 통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첫날 7일, 광림 교회 밀레니엄공원에서 LF워십 팀의 특송 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백백만 비전>으로 백개의 해외교 회 건축, 백개의 홀리클럽, 만명의 예배자 를 꿈꾸며, 해마다 여름과 겨울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6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교육선교를 통해서는 전국 미 자립 교회들을 위해 매년 여름성경학교를 광림 청년들이 직접 준비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섬기고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부 주일예배〉는 매주 오후 4시 30분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드린 후, 교구 별로 속회가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저녁 7 시 30분에 찬양과 기도 중심의 <쉐키나 워 | 결혼 9년 차 김유리 집사는 "36개월 된 쌍

십〉,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성경공부 〈비전 트리니티〉가 있다. 이 외에도 거리 전도팀, 장애인선교팀, 가로수길선교팀(달 레트), 클레시스, 노숙인선교팀, 병원선교 팀, 중보기도팀, 북한선교팀 등 많은 사역 들을 감당하고 있다.

청장년부 총력전도〈Let's Go Festival〉

청장년부는 결혼 10년 이내의 젊은 부부 공 동체이다. 주일 오후 1시-3시까지 광림사 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 모인다. 결 혼,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 정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 들을 믿음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또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말 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결혼예비 학교, 행복한 임신/태교학교, 젊은 가정을 위한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아가세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캠프와 세미나, 트 리니티 성경공부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둥이를 키우느라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청장년부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정 보를 공유하고,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다보 면 항상 간증거리와 은혜가 넘쳐요"라고 한 다. 김 집사는 어렸을 적부터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부에서 남편 명용인 집사를 만나 결혼했으며, 결혼 6년 만에 쌍 둥이 자녀를 출산했다. 사진작가인 남편 명 집사는 〈소망사진관〉으로 호렙산 새벽기 도회 기간 중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봉사를 하며 청장년부에서 지구장으로 믿음의 지 체들을 섬기고 있다.

이번 4월 28일 총력전도주일에 열리는 〈Let's Go Festival〉에서는 부모와 자녀들 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체육대회를 준비했다. 온 가족이 함께 청장년부 공동체 의 사랑과 은혜와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시 간이 될 것이다. 결혼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 환영한다.

문의: 청장년부 02-2056-5631

📩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광림의 강단
 3
 광림 스토리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김순애 권사 전도간증집회

하나님을 만나다 4 특별한 19교구 남성연합속회 이 여선교회 선교바자회

믿음의 현장

특집 조혜련 집사 특별간증집회

🔾 복음, 문화와 만나다 유물과 함께 보는 성경과 역사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78:1~9)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의 구원을 자자손손 가르치며, 과거의 일 들을 회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 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를 지도자로 보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 십니다. 애굽이 실패와 좌절의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입니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에서 불 러내어 새로운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주십 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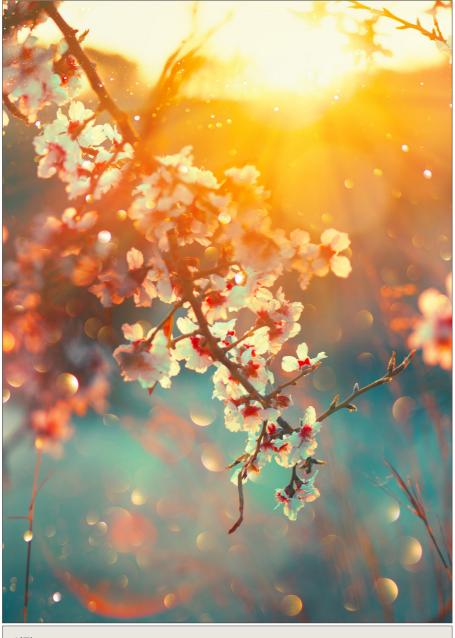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럼에도 이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순종하 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상숭배를 합 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 성은 다 죽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 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풍요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적인 빈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 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 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 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으로 주님이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오늘 시편 78편 9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 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 에 물러갔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 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 엽게 하였도다"라고 하고, 57절에서는 "그 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빗나가서"라고 합니다. 3 번이나 반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물러갔 고 돌이켰고 배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 브라임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의 장 자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



시편 78:1-9

1.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려 하니 3.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 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 게 전한 바라 4.우리가 이를 그들 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 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

리로다 5.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 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 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 으니 6.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 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 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 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 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 게 하려 하심이로다 9.에브라임 자 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물이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던 지파입니다. 에 브라임의 뜻도 '두 배나 과실이 충만하다'입 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 놀 라운 축복을 갑절이나 받았던 지파가 공격 과 방어의 장비를 갖췄음에도, 하나님이 함 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인 전쟁의 날 물러갔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백전백 승 합니다. 그러기에 물러갈 이유가 없습니 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물 러갑니다.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힘이 없습 니다.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 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 다 크심이라"(요일 4:4) 가장 위대하신 창조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어 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려움은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항상 하나 님과의 거리를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승리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이기적인 탐심으로 주님이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친절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시내 를 내시며,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 하나님 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10 절 이하를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께 대항하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 비하시랴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 여 고기를 예비하시랴"라고 조롱합니다. 놀 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부 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34, 36절을 보면 이 스라엘 백성의 표리부동한 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나, 입으로 아첨하 며 거짓을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렵 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니라"고 하며,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 라의 기업을 잇지 못함을 경고합니다. 탐심 은 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멀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를 축원합니다.

셋째, 불신앙으로 주님이 베푸실 <u>능력을 제한하지</u> 말라.

시편 78편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불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 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 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와 공급 을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베푸시는데, 그 때 뿐이고 돌아서면 의심하 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 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는 있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은 받지 못했습 니다. 모두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믿음의 관 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 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I 02-2056-5730

"전도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라!

4월 5일, 〈전교인 금요 은혜의 밤〉 김순애 권사 전도간증집회 열어



지난 4월 5일 본당에서 열린 〈전교인 금요 은혜의 밤〉은 특별했다. '예수님이 가장 기 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김순에 권사 (4교구)의 간증집회가 열렸다. 요한복음 15 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 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의 저자인 김 권사(4교구)는 CTS기독교방송에 출연하여 전도현장에서 겪은 간증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전한 적이 있다.

전교인 금요 은혜의 밤에서 김 권사는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과 기도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두 명씩 보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라. 전도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동역자와 함께하라. 전도되면 양육이 필요하다. 1년에 한 명 전도는 대단한 것이다. 뱀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절대 못 간다는 사람은 절대 올 사람이다. '전도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라. 시간의 달란트는 1주일 168시간 중 1/100 시간을 날짜를 정해서 전도하라. 칭찬을 많이 하고, 물질의 달란트가 제일 효과 있으니 한 번에 삼천원을 투자하라. 밑반찬. 과일, 쥬스 등을 이용

하면 대화가 잘 통한다. 재능달란트로 컴퓨 터나 스마트폰을 가르치거나 수지침을 배워 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취미가 무엇인 지 파악해서 함께하자. 전도 후 양육과정도 중요하다.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양육하면 서 새신자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며, 또한 "전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 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 믿음의 형제 를 얻게 된다. 나는 영적인 자녀 15명을 지 금까지 만나 영적 교제를 나눈다. 큰딸과 만 삭인 작은딸 역시 전도를 하는데, 스스로 해 야 되는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 고 축복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다. 전도의 최 종결정체는 전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전도는 축복의 관문이다. 하나님 사 랑, 이웃 사랑이 곧 전도다"라고 간증했다.

김옥이 기자 beauty0303@gmail.com

포토 뉴스



성령한국 청년대회 사전간담회

4월 4일, 광림사회봉사관 5층에서 성령한 국 청년대회 사건간담회가 열렸다.



남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임시총회

4월 6일, 광림사회봉사관에서 남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임시총회가 있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요한계시록 3장 7~1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남선교회 사랑의 쌀 전달

4월 7일, 2부와 3부예배 후 광림사회봉사 관 1층에서 사랑의 쌀 전달이 있었다.

담임목사 동정



/31 유아세례1

4/2 강남지방교역자 회의

4/4성령한국청년대회 사전간담회4/4솔트플랜 4기 8차모임 강의

4/6 서울남연회남선교회 임시총회

4/7 유앙겔리온 전도발대 예배

4/12 몽골선교센터 기공예배

감독 동정



4/7 광림남교회 주일예배

4/7유앙겔리온 전도발대예배4/12몽골선교센터 기공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유앙겔리온 전도발대예배〉,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4월 7일 주일 저녁예배 시간에 〈유앙곌리 온 전도발대예배〉를 드렸다. 이 시간에는 유앙겔리온 1기부터 3기까지 수료생 전원 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수료식이 진행되었고 수료생의 선서와 김정석 담임목사의 임명장 수여 및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

이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 씀을 서두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유앙겔리온 전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광림의 성도 들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뜻으로, 그 동안 진행되었던 〈프레시온 전도학교〉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프레시온 전도학교에 서 전도방법을 배웠다면, 유앙겔리온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과 어떻게 소통하는 지에 대해 중점을 둔 교육을 한다.

2017년 1기 66명을 시작으로, 2기 67명, 올해 3기 75명 등 총 211명이 수료하였다. 이들은 각 교구에서 2명씩 추천받아 이루어졌다. 1~3기 수료생들은 광림서교회와 광림 북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실천했고, 각 교구에서 총력전도 기간과 상시전도 시 앞장서서 전도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수료생들 중 일부는 새가족위원회와교구 양육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도와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행되는 〈유앙겔리온 전도학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4월 19일 〈성금요 성찬예배〉, 21일 〈부활절 음악예배〉



미가엘과 갈릴리성가대의 찬양으로

40일간의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접어든 4월 19일 성금요일 저녁 8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금요 성찬예배〉를 드린다

적인 된 우리의 구속을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수난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 죽음의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 성찬예배에 미가엘성가대 (대장 : 김두원 장로)가 성경봉독에 따라 이어지는 응답송으로 모차르트 곡 '레퀴엠' 중



에서 성경 주제에 합당한 5곡을 연주한다. 미가엘성가대원 140명과 10명의 미가엘앙 상블이 김건화 집사의 지휘로 연주할 곡인 '레퀴엠'(Requiem)은 진혼곡, 즉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곡'이란 뜻으로 라틴어로 '안식' 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를 위해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식을 행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 도께서 사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부활주일 4월 21일에는 저녁 7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2019 부활절 음악예배>가 드려진다.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갈릴리성가대(대장: 장대진 장로)가 주최하는 부활절 음악예배는 갈릴리성가대와 갈릴리오케스트라가 부활절 칸타타(주 하나님 크시도다)와 장엄미사곡 중 2곡을 연주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동행하는 마음으로 총 45명의 오케스트라와 145명의 성가대원이 강창우 권사의 지휘로 연주된다. 미가엔 각립리성가대의 모든 대원들이 기

미가엘, 갈릴리성가대의 모든 대원들이 기 도하며 준비한 음악예배들은,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이다.

★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내 인생의 말씀

늦은 만큼, 더 큰 기쁨 주시는 주님

저는 불혹이 넘도록 주님을 모르고 살았 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 린 시절의 결핍을 채우고자 행복한 가정 을 이루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런 제가 교회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랑하는 큰 딸(김성은 권사) 덕분이었습 니다. 딸이 미션스쿨에 입학하고, 목사님 댁의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된 후,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딸의 끊임없 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니, 왜 이렇게 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후회가 될 정 도로 즐거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제 신앙생활은 광림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속회, 선교회 활동을 하며 이웃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제 가정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교 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느끼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큰딸이 독일유학을 마치고 대학교수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 셨고, 큰아들은 믿는 집안의 딸과 혼인하 게 해주셨으며, 국내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 또한 대학을 졸업한 후 제 사업 을 성실하게 도우며 믿는 집안과의 혼인 을 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 든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축복을 간증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의 교회로 이끄는 데 죽는 날까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을 주장하시며 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 속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하나 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 자와 죽은 자 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으며, 이에 대비 하는 신앙을 키우겠습니다. 또 항상 주님 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생활할 것이며, 늘 주님 안에서 살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 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김기태 장로(남교회 새하늘성가대)

생생 속회 (36회) 19교구 남성연합속회

서로에게 멘토가 되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는 남성속회



"감리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속회가 잘 되는 교구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교회 방침에도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부진한 속회 도 살아나고 전체 남성속회가 모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19교구는 대부분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에서 가까운 편에 속 하지만, 남성속회로 모이는 일은 쉽지 않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개체선교회장, 교구회 장, 연합회장을 두루 역임한 장대진 장로는 무엇보다 남성속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감리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속회가 잘 되는 교구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교회 방침에도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부진한 속회도 살아나고 전체 남성속회가 모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평소에 19교구는 매주 정해진 지구, 속회별 로 모임을 갖지만, 분기에 한 번은 전체 속 원이 선교구 목사와 함께 한 곳에 모여 예배 를 드린다. 지난 2월 21일 장대진 장로 가정 에서 30여 명이 남성연합속회 모임을 가졌 다. 장 장로는 "젊었을 때 넓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부 러워 나도 큰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했다.

이날 정용식 목사는 '경건한 남성'(딤전 4:6)

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 남자가 하나님 의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그 집에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 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며,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신앙의 성숙함 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성도들은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 졌다. 처음 속회에 나온 성도, 오랫동안 갈 릴리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 전직 이 선장인 성도, 치과의사 성도, 요양원을 운영하는 성도, 갤러리를 하는 성도, 건설업 종사자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성 도들이 모여 은혜를 나누었다.

특히 교구회장인 윤양효 권사는 매주 사위 (하형주), 딸(윤하나), 손주(하예성) 등 3대 가 함께 속회를 드리고 있으며, 지난해 호렙 산기도회 때는 네 살인 손주가 하루도 빠짐 없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비교적 젊은 층 위주의 속회는 스데반선교 회장이기도 한 백두환 집사가 인도한다. 가 수 백지영의 친오빠이기도 하면서 현재 대 학에서 철학강의를 하고 있는 백 집사는, 속 회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대화 를 하며 서로 멘토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 혜도 얻게 된다"고 속회의 유익함을 알려주 었다. 밝고 훈훈했던 이번 연합속회 분위기 만큼이나 성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19교구 남성속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メ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벚꽃같이 하얗고 예쁜 우리 아이, 하나님의 자녀 돼

3월 31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총 18명의 유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박태민 부:박창규/모:김나래 신민규 부:신현제/모:정나리 소연재 부:소대범/모:김소연







이주승 부:이윤호/모:김소은



이태윤 부:이재용/모:은영일



문예진 부:문종환/모:이혜림



정아인 부:정명진/모:이연지 윤이나 부:윤상원/모:곽은정





정민겸 부:정호영/모:김소영



김하은 부:김영차/모:김수0



2019년 4월 14일 주일 제785호

대화 토론 통해 아이의 사고력 키우는 하브루타

빛의 숲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하는하브루타 부모교육, 4월 한 달 매주 목요일 진행



본래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소통하고 싶으세 요? 아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 하브루타 를 시도해 보세요." <대한민국 엄마표 하브 루타〉 저자인 김수진 강사가 '빛의 숲 어린 이 도서관'(광림사회봉사관 3층)에서 4월 한 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총 4회에 걸 쳐 유·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법을 지도하고 있다. 첫 번째 교육에는 샤이닝키즈 학부모, 샤이닝스쿨 교사, 성도 등약 20명이 참여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 방식인 '하브 루타'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써, 가족 공동체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 탈무드가 가진 생 각의 다양성을 자신만의 지혜로 만들어 가 는 과정이 하브루타이다. 하브루타는 '친구' 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로, 유대인에게 친구 는 생각을 나누는 파트너다. 짝과 대화를 나 눌 때 올바른 정답은 없다. 각자의 생각과 |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실제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전 세계 인구의 0.2%지 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를 차지하는 유대인의 성공 비결로 하브루타를 꼽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 과정에 적용

한국식 하브루타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엄마 의 다양한 질문에 아이가 편안하고 자유롭 게 대답하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지혜를 체득해가는 눈높이 교육이다. 아이와의 대 화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아이의 속마 음까지 나눌 수 있어 엄마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독서 하브루타는 책읽기와 하브루타를 접목시킨 것으로, 책을 매개로 질문을 만들 고 생각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 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도록 돕는 활동이다. 1주차 동화책 하브루타 시간에는 내 아이에 맞는 책 선정 방법, 그리고 아이와 생각하는 로 짝을 이루어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 으로 3회에 걸쳐 미술 하브루타, 학습 하브 루타, 표현 하브루타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우혜영 집사(19교구) 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깊고 넓게 생각 하게 해 주는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하는 과정 에서 내 생각과 다른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질문 토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앞으로 가족 간에 아이를 중심으로 많은 대화를 나 누겠습니다. 좋은 교육을 알게 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라고 말했다.

4월 21일(주일)에는 의궤 만들기 활동을 통 한 조선시대 맛보기, 28일(주일)에는 앨범 만들기를 통한 근현대사 맛보기 등의 어린 이 역사기행 체험 활동도 진행된다.

문의 : 김성일 교사 010-9077-5776

➡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계란에 담아요!"

교회학교 중등2부, 부활절 맞아 〈에그아트 콘테스트〉 마련



사순절 보내며 인내와 절제로 부활주일 준비 본다

교회학교 중등2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 증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 활의 의미를 새기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 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에그아트'(부활 절에 쓰이는 계란에 문양을 그려 넣는 공예) 를 통해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표 현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순절을 보내며 학 교와 가정에서 기도와 인내, 절제의 훈련을 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부활 주일에 선보일 에그아트를 구상하고 생각해 | 들이 엄선하여 개인별, 반별로 시상을 한다.



문다희 학생(중등2부)은 "부활절 달걀을 꾸 미고 만드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마치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행복해요"라 며, 올해 부활절에도 에그아트를 정성스럽 게 만들기를 소망했다.

에그아트에는 사망권세를 이기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빛깔로 표현될 것이다. 부활절 당일에 학생들이 반 별로 만든 에그아트는 중고등부 담당 장로

박영노 장로(중등교육위원장)는 "고난의 과 정을 넘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표 현하는 에그아트 대회가 큰 은혜로 다가옵 니다. 부활절 계란을 만들면서 부활의 의미 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 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생들

중등2부는 교육2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다. 오랜 세월동안 기도와 헌 신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으며, 이 교사들의 땀과 수고로 다음세대 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 게 성장하고 있다. 박영준 권사(중등2부장 교사)는 "중등2부 교사들은 정체성을 찾아 가는 나이의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 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 창시절과 사춘기를 함께 보낸 아이들이 단 단하게 성장하여 청년으로, 교사로 찾아올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전하며 중등2 부 에그아트 전시회에 관심 가져주길 당부 했다.

メ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신앙 간증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얼마나 기다리실까?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선교국에서 거리 전도팀 사역을 맡고 있는 성원제입니다. 총력전도를 맞이한 4월, 짧게나마 이 지 면을 통해 거리전도를 하면서 체험한 이 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리전도를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 은 '기도'였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 니라 하시니라"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 씀처럼, 그 지역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는 잘 이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 고 모든 일이 '할렐루야' 하며 잘 되어지지 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사역을 해도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도를 한다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도 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나의 마음을 보호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을 주셔서 그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버 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더불 어 그들이 하루 빨리 하나님의 곁으로 오 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 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하나님을 거절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을까?' 그리고 '하나님 은 저 사람들을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더 열심히 전도사역을 하 게 됩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 다리는 바디매오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 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 또한 전도를 하면서 내적 갈등 과 '이것이 맞는 일일까?' '너무 무식한 행 동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 를 하면서 가끔은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울면서 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 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위 로의 마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자를 통해 서 자신의 계획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전도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와 같은 가 시적 열매는 없을지라도, 전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 심을 보는 비가시적 열매를 볼 수 있는 은 혜를 체험했던 장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총력전도 기간 광림교회 모든 식구들도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违 성원제 성도(청년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요

- 목회현장 -



김대영 목사(광림남교회 교육부)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요." 학교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청년 이 한 말입니다. 현재를 보면, 상황이 풀 리지 않고 앞길이 막힌 것 같으며 문제투 성이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 정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신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신앙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 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을 '신앙적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무신론에 빠진 사람은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전도는 하지만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결과 '이문제만큼은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음영 지역(하나님도 별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리)을 없애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한 제자들은 실패 자요, 패배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찾아오셨지만 그분을 믿을 수도, 느낄 수도, 알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난 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인 십자가 앞 에서 '신앙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기 때 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못 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 어다 성령을 받으라"(요 20:19~29)고 말 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것처럼, 주님 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 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바 라시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요."

청년의 이 말은 신앙적 무신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깨뜨린 영적 고백입니다. 직장에서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 사는 것이 녹록치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 광림남교회 -



3월 29일 〈금요 은혜의 밤〉은 광림남교회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광림수도원 샬롬하우스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봉헌되었다는 귀한 소식이 들려왔고, 그동안 공사로 방문하지 못했던 광림수도원에서 3월 마지막 금요일에 1박2일 일정으로 〈겟세마네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광림남교회 성도들은 연초가 되면 항상 광림수도원을 방문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방문해보니 언제나그랬던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영감과 경건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고, 양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내

려놓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위로해 주는 곳, 나의 연약 함을 아시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허락하 는 곳,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먼 길에서 온 늦은 밤이었지만, 그 열정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기드온의 용사처 럼 대단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 어 늦게 도착한 성도들은 입구에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림남교회의 자랑 올프레이즈 찬양단의 찬양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 도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문 에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 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가복음 14:36)라고 하시며 인류 구원의 소명 앞에 담대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모든 호흡을 쏟아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하였고, 두려움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베드로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외칠 때, 그것은 회개였으며 또한 감사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 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 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 사야 53:5)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시고,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 금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 되는 모습 앞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이사야 40:8)

모든 순서가 끝나고 숙소로 내려오면서 광 림수도원 가장 높은 곳에서 환하게 불을 밝 히고 있는 다락방채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며 이곳으로 인도하 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 하는 도구로 저를 쓰시옵소서." 아멘.

📩 김영덕 권사 (광림남교회)

구매자 판매자 모두 '기부자'가 되는 봄축제 〈선교바자회〉

여선교회 주최, 수익금은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 건축헌금으로 쓰일 예정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4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에서 열린 다. 젊은 연령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 제 같은 분위기로, 구매자나 판매자가 모두 기부자가 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런했다.

더욱 풍성해진 바자회는 품목별로 위치를 정하여 푸드존, 웰빙존, 럭셔리존, 패션존, 수제공예존, 키즈존, 알뜰존으로 나누어 이 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교회학교



와 함께 협업하여 '키즈플리마켓'이 오후 1 시부터 5시끼지 키즈존에서 열린다. 선교와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뜻 깊은 키즈 플리마 켓에 아이와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 다. 교회학교 전도사, 교사도 함께하며 방문 하는 어린이에게는 간단한 스낵을 제공하 고, 놀이마당에서는 솜사탕과 페이스페인팅 도 준비한다. 광림사회봉사관 쪽 벤치가 있 는 열린 공간에는 푸드존 파라솔도 설치하 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예년과 달리 바자회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 였고,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광고하고 있다. 필요한 물품을 적어두었다가 동영상을 보고 목록을 작성하여 바자회 때 구매하면 가정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여선교회 임원들은 존 별로 팀을 나누어 리더를 세우고 팀원들이 기도하며 많은 아이디어도 내놓으며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참여하는 업체들도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이외에도 140개 부스를 마련, 엄선된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 벼룩시장과 놀이마당, 5시부터 딱 한 시간만 '깜짝 1,000원 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마리아선교회원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바자회의 모든 수익금은 블라디보스톡 선교 센터 건축헌금으로 쓰인다.

🖈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다시 일어서는 〈31교구 스데반 가족들〉

2019년 3월 31일, 남선교회 사무실에서 첫 모임 갖고 헌신 다짐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스데반선교회원들이 의기투합했다. 지난 3월 31일(주일) 3부예 배 후, 31교구 스테반 선교회원들은 남선교 회 사무실에서 2019년 첫 모임을 가졌다. 시 작은 다소 늦었지만 신임 회장인 박범준 집 사를 포함한 회원 7가정과 목회자, 멘토 이 종국, 한경희 권사가 스테반 가족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1선교구 31교구는 영등포와 목동, 부천, 인 천 지역으로 2년 전 지성전인 광림서교회 분리로 90여 세대가 서교회로 편입되면서 교구를 위해 헌신하던 성도들이 떠나 잠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복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윤 목사는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1~13)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 중에 첫 째인 사랑을 실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는다"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 주기 를 당부했다.

"다음 모임은 언제에요? 너무 아쉬웠어요."

31교구 스데반 회원들은 주중에는 여느 30, 40대처럼 맞벌이를 하며 일과 가정, 자녀교 육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또 주일에는 아 이들은 교회학교, 회원들은 교회 각 기관에 서 봉사한다. 회원들 중 정성훈, 오진이, 박 광현, 이석원, 오수진, 유은경 집사는 교사 로, 박범준, 김재성 집사, 한진희 성도는 성 가대로, 김미영 집사는 오케스트라 단원으 로 헌신하고 있다.

대부분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 개개인의 믿음 또한 훌륭하지만, 일과 후 돌봐야 할 아이들과 집안일 등으로 분주해 따로 시간 을 내서 새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모임을 갖 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날 선교 회에는 주일봉사 등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회원들까지 선교회 장소에 들러 인사를 나 눴고, 아쉬움이 가득한 채 식사와 사진촬영 을 하지 못하고 봉사 부서나 약속 장소로 걸 음을 옮겨야 했다.



특히 황준성, 서정아 성도 가정은 3부예배 를 드리던 중 위경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 하고 차에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 아내 서 성도가 모임에 참석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선교회원들은 황 성 도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고, 선물 과 피자를 포장해 주며 다음을 기약했다. 전임회장인 황경상 집사는 "스데반 회원으 로 있기엔 조금 많은 나이지만, 인생 선배로 써 젊은 시절 겪는 여러 문제 앞에서 고민하 는 회원들에게 부족하지만 조언과 기도로 함께하며 젊은 스데반선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몇 명의 회원이 참석할 지 몰라 믿음으로 많 은 양의 피자와 김밥을 준비한 박범준 집사 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저 간 회원들이 많아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모임이 언제에요?'라는 문자에 힘을 얻었고 벌써 다음 모임이 기대된다"며 "늘 사랑과 열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김기 윤 목사님과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해 주신 이문자 전도사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조혜련 집사,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4월 28일 주일, 〈총력전도주일 특별간증집회〉에 새가족 초청



"다른 것들에서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며 영혼의 갈 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마음에 평안과 감사 받아

사. 누구보다 자아가 강했던 그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 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성경낭독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며 "나는 성경 바람잡이입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생명으로 영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스타가 됐고, 그 은 혜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의 반전 을 맞아 감사와 평안으로 변화된 조혜련 집 사의 신앙생활에 관한 삶의 간증이 4월 28 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있을 예정이며, 성도 들과 새가족들을 초청해 함께하고자 한다. 2019년 상반기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광림 교회 성도들은 4월 초부터 총력전도주일인 4월 28일까지 21일간 '다니엘기도회'로 전 도 축제를 시작했다. 교구별로 집중해서 진 행되는 다니엘기도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먼저 영적 무장을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은 복음 전도에 나서고 있다. 4월 5일 〈전교인 금요 은혜의 밤〉에는 전도 간증집회로 성 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7일에 는 〈유앙겔리온 전도단 발대식〉으로 전도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부에서는 '청년, 숨 쉬게 하라'는 제목으 세상에 웃음을 전하던 개그우먼 조혜련 집 │ 혼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뜨겁게 하나님을 │ 로 총력전도를 위한 <특별 젊은이예배>를

드리고, 청장년부는 Let's go Festival로, 사 랑부는 4월 21일 장애인주일과 부활주일을 겸해 행사를 진행하며 다음세대의 영혼 구 원에 앞장서고 있다. 남선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택시전도데이〉로 교회 를 찾아오는 택시 기사들에게 선물을 하며 총력전도에 앞장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 선교회에서도 새신자들과 이웃들을 초청해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선교바자회〉를 4 월 23일(화)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에서 갖 는다. 교회학교도 바자회에 '플리마켓'과 '키 즈존'을 열어 젊은 이웃들과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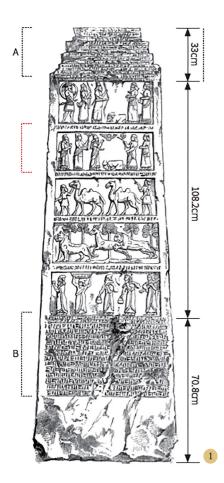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인 의 의무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림 성도들은 오늘 도 깨어서 기도한다.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전도축제는 광림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들 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이한다.

メ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9 검은 오벨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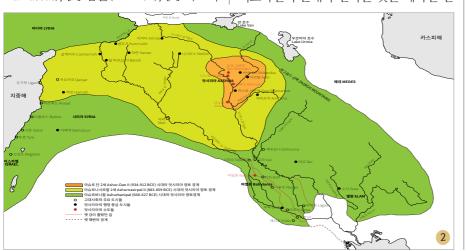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대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제국들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유다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관심 밖에 있었기때문에 성경 역사 이야기들(예를 들자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소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예가 카르카르(The Battle of Qargar) 전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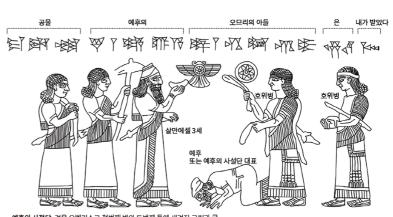
앗시리아(우리말 성경. 앗수르)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규모로 만난 첫번째 전쟁은 아합 시대였어요. 기원전 853년에 살만에셀(Shalmaneser III: 858-824 BCE)의 군대가 가나안과 아람 지역의 나라들이 결성한 연합군과 카르카르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12나라의 연합군에는 이스라엘과 함께[1]하맛(Hamath), [2]아람 다메섹(Aram-Damascus), [3] 암몬(Ammon), [4]아르와

드(Arwad), [5] 쿠(Que), [6] 이르카나타 (Irqanata), [7] 쉬아누(Shianu), [8] 우산나타 (Usannata), [9] 마수라(Masura), [10] 아랍 (Arab), [11] 이집트(Egypt-이집트의 참전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가 이름을 올렸습니 다. 이 연합군의 지휘관이 아람-다메섹의 하 다드에셀(Hadadezer)인데요. 아람이라고 하 면,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합과 전쟁에 서 대패하여서 아합과 조약을 맺고 돌아갔 던 나라입니다.(왕상 20장)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되지 않아서 열두 개 나라가 함께하는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 니다. 어찌되었든 아합은 2,000대의 병거와 10,000명의 군인들을 참전시켰습니다. 이 전 쟁을 기록한 쿠르크 석비(Kurkh stela)가 없 었다면, 아마 역사에 이 전쟁이 있었는지 조 차도 몰랐을 거예요. 또 성경에 등장하고 서 로 다툰 아람의 벤하다드(우리말 성경. 벤하 닷)와 아합이 서로 다투었다가, 성경대로 전 쟁 후에 서로 조약을 맺고 친선관계를 맺은 후, 몇년 후에는 곧 연합군으로 함께 앗시리 아와 견주어 싸웠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 묻 혀 버릴 뻔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고학의 발견으 로 알려진 살만에셀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 왕국의 예후 역시 여전히 살만에셀에게 조 공을 바치는 왕으로 앗시리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 군대의 장군이었습 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서로 마 주하고 있던 때, 요람이 전쟁 중 부상을 입 었나 봅니다. 잠시 전열에서 빠져 나와 이스 르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엘 리사가 제자 중의 하나를 보내 예후에게 기 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 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예후를 따르게 되었 어요.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인 후 북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28년간 다스렸습니다.(842-815 BCE)

당시는 살만에셀이 아버지인 아슈르나시르 팔(Ashumasirpal II)이 그어놓은 국경을 넘어 동서남북 종횡무진 군사를 이끌고 영토를 넓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만나는 것은 예측된 결





예후의 사절단. 검은 오벨리스크 첫번째 변의 두번째 둘에 새겨진 그림과 글

과였지요. 이 영토 확장 전쟁에서 이미 이스 라엘의 아합과 11개의 동맹 국가들이 연합 하여 앗시리아의 팽창을 막아 보았지만, 허 사였습니다. 쿠르크 석비가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력한 위력을 과시 한 앗시리아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 역시 쉬 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 어(비록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 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된 예후 역 시 살만에셀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아래 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만에셀은 비 록 예후가 아합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가의 후예로 예 후를 인정하였고, 그로부터 공물을 받아 이 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 물이 살만에셀의 검은 오벨리스크(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입니다. 이 오벨 리스크는 검은색 현무암으로 만들어 진 사 각형의 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전 825년에 당시 앗시리아의 수도인 님루드 (Nimrud)에 세워졌는데요. 님루드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갈라 (Calah)라고 하는 곳으 로 함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창 10:11) 사각 기둥의 꼭대기 부분은 마치 지구랏(Ziggurat)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요. 이 오벨리스크는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 이야드 (Austern Henry Layard)가 1846년에 발굴한 것입니다. 이 오벨리크스의 네 면에 는 다섯 줄로 그림과 함께 조공을 바치러온 나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줄이 예후가 보낸 공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살만에셀 3세가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을 새겨놓은 그림을 보면, 살만에셀의 뒤로 한 시종이 햇빛 가리개를 받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뒤에 있는 또 다른 시종은 마치 살만에셀에게 부채질을 하듯 하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후에게 조공을 받는모습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만에셀을 보고 있어요. 맨 양쪽의 사람들은 살만에셀을 호위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옆 면에는 두명의 앗시리아 관리가 앞에 서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네 면으로되어 있는데, 다른 면으로 넘어가면서 파노

라마처럼 보는 방식이예요. 그렇게 파노라마로 보면, 호위병의 뒤로 세 명의 이스라엘사람들이 살만에셀에게 바칠 공물을 옮기고있습니다. 다시 옆면으로 돌면 그 면에는 조공을 바치는 다섯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더 있는데요. 손에는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와 막대기, 잔과 왕의 홀과 막대기를 들거나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면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섯 명이 조공을 메고 이며 오는데요. 어깨에는 큰 그릇들과 손에는 손잡이가 있는 그릇, 그리고 머리에는 무언가를 이고 있습니다. 살만에셀은오벨리스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 았다. 은, 금, 금사발, 금대접, 금잔, 금주전자, 주석, 왕의 손에 들린 홀과 막대기"

독립 국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합 시대 이후로 앗시리아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만에셀의 검은 오밸리스크 (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가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조공도 큰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722BCE)



사진설명

- 1 **쿠르크 석비**: 아슈르 나시르팔 2세와 그의 아들 살만 에셀 3세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전쟁 역사를 기록한 석 비이다. 1861년 영국의 고고학자 타일러가 터키 동부 비스밀 지역의 쿠르크 마을에서 발굴했다.
- 2 **앗시리아 제국의 영토 변화**: 이슈르 나시르팔 2세 가살만에셀 3세의 아버지다.
- ③ 예후의 사절단: 검은 오벨리스크 첫 번째 변의 두 번째 물에 새겨진 그림과 글.
- 4 아벨 벧 마아가 Abel Beth Maacha에서 2017년 에 발굴한 두상 : 아합 또는 예후로 추정.
-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